월요광장

잃어버린 뇌를 찾아서

임 몽 택
미네르바 코칭앤컨설팅 대표
전 광주대 경영학과 교수

런던대학 교수 엘리노어 맥과이어는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우측 뇌 해마 뒷부분이 일반인들의 뇌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측 뇌 해마 뒷부분은 '위치와 경로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영역'이다. 원인은 무엇일까? 런던에서는 택시인 블랙캡(Black Cab)을 운전하려면 'The knowledge'라는 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범죄 기록이나 신체에 이상이 없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런던 중심부를 기준으로 반경 6마일 안에 있는 3만 9000개의 거리 이름, 1만 5000개의 건물과 시설 위치를 모두 외워야 한다. 시험관이 목적지를 지목하면 지도 없이 최단 거리를 최소 시간에 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시(考試)라고도 불리는 이 시험에 합격하려면 보통 3년 이상 런던 지리를 공부해야 하는데 이때 '위치와 경로에 관한 정보를 학습하고 저장하는' 해마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해마가 더 발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뇌 가소성'이라 한다.

뇌 가소성이란 새로운 경험, 학습, 부상 또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뇌가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뇌 가소성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다. 마약에 중독되면 뇌는 그 습관을 강화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구조를 바꾼다. 이때 행동을 주시하고 집중시키는 뇌의 영역인 전전두피질이 변화하는데 뉴런은 갈망, 보상, 강박과 관련된 연결을 강화하는 반면 충동 조절, 합리적 의사 결정과 관련된 연결은 약화시킨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뇌는 약물을 선호하는 쪽으로 강화되어 약물에 저항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다. 수많은 디지털 기기들이 이미지,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다 보니 구독자들은 텍스트를 주의 깊게 읽을 시간과 여유도 없이 헤드라인이나 요약 등을 훑어보게 된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도 글을 읽으면서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무언가를 보면서 스크롤하는 등 멀티태스킹을 한다. 사람들은 모두 기다리는 법을 잊었고 깊이와 성찰보다 속도와 효율성을 선호하게 되었다.

훑어보기는 뇌를 깊이보다 속도에 집중하도록 훈련시킨다. 빠른 인식, 필터링과 관련된 신경 회로는 우세해지는 반면 깊고 집중적인 읽기와 사색에 사용되는 회로는 사용이 줄어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된다. 결국 키워드 탐색에는 능숙해지지만 복잡한 텍스트를 해독하거나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빠른 피드백 루프(좋아요, 공유, 알림 등)도 보상 시스템을 장악한다. 즉시 만족이 디지털 미디어의 강박적인 사용을 조장하여 뇌는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에 맞춰지게 된다.

멀티태스킹 또한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장기 기억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뇌의 능력을 저하시킨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기억력이 떨어지고 학습 깊이도 떨어진다. 소셜미디어 이용은 사회적 단서를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온라인 상호작용은 대면 상호작용과는 달라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불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 세계적인 IT 미래학자이자 인터넷의 아버지라 불리는 니콜라스 카가 쓴 책이다. 그는 책에서 "인터넷 사이트와 서비스에 익숙해지고 의존하게 되면서 (중략) 나의 뇌는 굶주려 있었다. 뇌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랐고,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질수록 더 허기를 느끼게 된 것이다. 나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조차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링크를 클릭하고, 구글에서 무언가를 검색하고 싶어 했다. (중략) 나는 이전의 뇌를 잃어버렸다"라고 썼다.

휴머노이드가 몰려오고 있다. 인간이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에 함몰되어 지속적인 자극과 스키밍, 멀티태스킹, 그리고 빠른 피드백 루프에 중독된다면 인간과 휴머노이드의 경계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잃어버린 뇌를 되찾으려면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실천해야 한다. 조지 타운대 교수 칼 뉴포트가 제안한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도움이 되며, 신중하게 선택한 소수의 최적화된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모든 활동은 기꺼이 놓치는 기술 활용 철학이다." 즉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선택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불필요한 디지털 기기 사용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다.

수필의 향기

다시 돌아오는 것들에 대하여

김 향 남
수필가

잊고 있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앙상하던 가지에 수액을 맞은 듯 푸른 혈류가 돌더니 이내 무성해지는 중이고, 온갖 풀과 꽃들이 불멸의 혼처럼 깨어나 사방천지에 색동옷을 입히고 있다. 새들은 더 소리 높여 아침을 노래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어쩐지 마음이 부푼다. 수많은 봄을 겪어 왔지만, 다시 또 설레고야 만다.

지난해 늦봄, 부모님 묘소 앞에 작약 몇 포기를 심어 두었다. 화사한 꽃망울을 보시면 두 분도 흐뭇해하실 것 같아서였다. 살아생전 다하지 못한 효도를 그렇게라도 전해보려는 마음에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무성하던 잎사귀가 하루아침에 사그라져버렸다. 기대했던 마음이 허탈하게 무너져내렸다. 그래도 뿌리는 살아 있겠지? 희망이야 끝내 버리지 못했으나 그마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도 지나고 다시 돌아온 이 봄날, 보란 듯이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이 아닌가. 검불 덮인 땅을 가르고 쏙쏙 고개를 내민 붉은 싹들이 유레카를 외치던 아르키메데스보다도 더 벅차오르게 하였다. 나태한 마음에 죽비를 내리듯 화들짝 정신이 들게도 하였다. 그 땡볕 아래서도 살아남았고, 그 비바람, 그 폭설 아래서도 살아남았나니, 이 봄날의 귀환이 어찌 자랑스럽지 아니한가.

어제 아침 산책로에서는 다람쥐를 적어도 열 마리쯤은 본 것 같다. 얘네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천둥벌거숭이들이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인지 함부로 길 가운데를 가로질렀다. 사람들 발소리에 후르르 숲속으로 달아나거나 우듬지 사이로 공중곡예를 펼쳤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과 유연한 줄무늬, 공기처럼 가벼운 몸짓이 얼마나 앙증맞고 귀여운지 사람마다 발걸음을 멈춘 채 행복한 구경꾼이 되었다.

아직 미결된 귀환도 있다. 돌아오지 않아서 여전히 설레며 기다리는 중이다. 작년 이맘때 산책로를 걷다가 길가 난간 틈으로 문득 작은 움직임을 포착했다. 뭐지? 반사적으로 몸을 굽혀 아래를 들여다봤더니, 와, 아기 오리 대여섯 마리가 바지런히 종종걸음을 치고 있는 거다. 앞장선 엄마 오리는 보무도 당당하였다. 탄탄한 가슴께와 뒤뚱거리는 걸음 속에는 모종의 위엄마저 서려 있었다. 엄마와 아기들의 그 해맑은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다. 내 시선을 눈치챘는지 어미 오리가 서둘러 풀숲으로 숨어들었다. 아기들도 죽을세라 그 뒤를 따랐다. 풀숲은 금방 그들의 요새가 되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햇살만 고요했다.

잠깐 사이 천국을 다녀온 듯, 어느 파라다이스에 불시착한 나그네인 듯 아릿한 행복감에 젖었다. 짧고 아쉬운 만남이었지만, 그보다 좋은 순간은 없지 싶었다.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완전히 천국 같은 순간을 '파라다이스 빔'이라고 한다는데, 그 순간이야말로 응당 그렇지 싶었다. 생각만으로도 미소가 떠오르니, 봄날이 내게 안긴 최고의 선물이었음이 분명하다.

시간은 강물이 아니라 포도나무다. 직선으로 흘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치고 덩굴을 뻗으며 우리의 삶 곳곳을 휘감는다. 계절처럼 순환하고 기억처럼 되돌아온다.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뒤섞인 채 나선형으로도 확장된다. 어느 때는 기어가고 어느 때는 날아가며, 뭉텅뭉텅 떨어져 버리거나 흔적 없이 증발해버리기도 하면서 우리를 맴돈다. 해마다 포도 열매 새로 열리듯 다시금 돌아와 우리를 위해 멈춘다.

지금 여기는 끝없는 귀환의 축제장이다. 다시 돌아오는 것들의 발자국이 크레바스처럼 번져가는 중이다. 대도시의 허황한 거리에도, 산골짜기 메마른 논밭에도 날마다 귀환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시시각각 무성해지는 새순들은 영원회귀의 신화를 입고 있다. 데메테르의 횃불을 치켜들고 '우리는 불멸이다'를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오늘은 뻐꾸기 소리를 듣는다. 듣기에 따라서는 '호호호호' 웃는 것 같기도 하고, '흑흑흑흑' 우는 것 같기도 하고, '홀딱 벗고' 유혹하는 것도 같다는 검은등뻐꾸기의 네 마디 노래다. 한 마디도 놓치지 않는 정확한 네 음절의 전언(傳言). 어떤 스님은 '머리 깎고' 정진하라는 소리로 들으셨다는데….

다시 돌아온 화두를 받아들고 봄날을 듣고 있다.

기 고

목포·신안 통합, '단계적 수순'이 필요하다

김 병 록
목포대 경영행정학과 교수

최근 전북, 전남, 광주가 참여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이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며 지역 간 광역 연대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 AI 인프라 유치, 공동 교통망 구축, 국제행사 공동 유치 등 실질적 협력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때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은 아쉽게도 중도 무산되고 말았다. 빠른 시일 내 특별지자체를 구성해 행정 통합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 주민 수용성 부족, 제도적 기반 미비 등의 이유로 추진력을 잃었다. 이는 '속도감'만으로는 통합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 논의 또한 다시금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는 양 시군 단체장의 강한 의지와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2026년 통합시 출범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교류, 공동 행사,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그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양 시군 단체장의 직위 상실이라는 변수는 통합 추진의 전제 조건 자체를 흔들고 있다. 특히 향후 선출될 차기 단체장, 특히 신안군 측의 향배에 따라 통합 논의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임기 내 통합' 전략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 현실적일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는 현재의 정치적, 행정적 공백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통합 전략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통합 추진보다는 실질적인 협력과 신뢰 축적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 접근 방식이 더욱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도 충분히 실행 가능한 양 시군의 상생협력 과제부터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관광자원 공동 개발, 농수산물 유통 공동 플랫폼 구축, 청년 일자리 연계 사업, 교통망 통합 계획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협력 사업을 통해 통합의 필요성과 성과를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통합 논의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향후 경제협력→제도적 경제동맹→행정통합으로 이어지는 점진적 통합 로드맵의 기초가 될 것이다.

통합은 단지 단체장 간의 합의로 완성되는 일이 아니다. 주민과 지역사회의 공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 위에 서야 한다.

아울러 부울경 메가시티의 실패가 보여주었듯이 속도와 선언 중심의 통합은 되레 통합 자체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감을 불러올 수 있다. 지금은 일시적인 동력보다 긴 호흡으로 준비된 통합 전략을 설계할 시점이다.

목포와 신안은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문화적으로도 긴밀히 연결된 지역이다. 장기적으로 통합은 분명히 필요한 과제다. 그러나 그 방식은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현실에 맞춘 단계별 실천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제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가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통합의 방식'을 재정립하길 제안한다. 성급한 일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신뢰와 성과이며 이는 단계적 실천에서 비롯될 것이다.

社說

차기 정부 '균형발전' 등 호남 공약 반영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당별로 경선 일정이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충북 청주에서 충청권 경선을 치른데 이어 20일에는 울산에서 영남권 경선을 진행했다. 이재명 후보가 90% 가까운 득표율로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을 확인한 가운데 관심은 김동연과 김경수 후보 중 누가 2위를 차지할 것인가에 쏠려 있다. 다자 구도인 국민의힘은 A,B조로 나눠 19일과 20일 경선 토론을 벌였다.

지역민들의 관심은 26일 치러지는 민주당 호남 경선이다. 후보마다 지역별 맞춤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인데 아무래도 관심은 이재명 후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조기 대선에 따라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발굴해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호남인들이 대선 공약에 반영되길 희망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균형발전이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부터 균형발전을 모토로 공기업 지방 이전 등을 추진해 왔지만 정권이 보수 정부로 넘어가면서 퇴행을 반복하는 바람에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비롯된 6·3 조기 대선에선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아올 가능성이 높아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다.

호남인들의 또 다른 대선 공약 희망은 경제 도약일 것이다. 호남은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 속에서 소외돼 온 만큼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첨단시대를 맞아 차기 정부에선 신 성장동력 산업이 호남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의 AI 모델시티가 대표적이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고질적인 병폐다. 이번 대선에선 모든 후보들이 호남 같은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들어서고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균형발전을 대선 공약으로 약속하길 바란다.

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 환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을 늘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족의 삶이 무너지는 비극이 반복되는 일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인데 적극 환영한다. 이 후보는 "가족이 돌봄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식만 혼자 두고 떠날 수 없는 부모가 함께 삶을 놓아버리자고 마음먹기도 한다"며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면 가까운 미래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정책이다. 장애인을 가진 가정은 가족들이 '독박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남에서 특수학교에 보내는 부모들만 하더라도 왕복 통학에 하루 4시간 가량을 할애하고 있다. 차량에는 휠체어 리프트 조차 없어 부모가 자녀를 안고 버스에 타고 내리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독박 케어에 지친 가족들의 간병 살인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계단이 장애인에겐 넘을 수 없는 금지선이 되는 현실에서 장애가 꿈과 희망, 일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누구나 원하는 삶을 꿈꿀 수 있어야만 진짜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보는 의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가 기반 시설부터 돌봄까지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책무 가운데 하나다.

無等鼓

정권과 수능

대학입시 정책은 해방 이래 현재까지 줄잡아 14차례 바뀌었다. 박정희 정권은 1961년 '중·고등학교 및 대학 입학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제정,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를 실시했다. 대학을 상징하는 상아탑을 비꼰 '우골탑'(牛骨塔)이라는 조롱이 회자됐고 '대학 망국론'이 거론될 정도였기 때문이다. 국가고사제에서는 학과·과목별 국가고사 성적과 대학별 실시검사, 신체검사, 면접검사를 합산한 성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했다. 국가고사제는 합격 커트라인이 높은데다 우수대학에 학생이 몰리는 바람에 나머지 대학에서 줄줄이 미달사태를 빚었다. 사실상 수능 흑역사의 시작이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 '교육정상화를 위한 과열과외 해소 방안'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군사정권 답게 과열 과외와 재수생 증가 등과 같은 교육문제 원인을 대학의 좁은 문호라고 보고 입학정원을 일시에 30% 늘렸다. 증원분에 해당하는 학생을 중도 탈락시킨다는 이른바 졸업정원제를 도입했다. 학생을 탈락시켜야 하는 대학과 학생의 반발 등 부작용이 심해지자 폐지됐다. 노태우 정부에서 1993년 시행된 첫 수능은 200점 만점 방식으로 같은 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됐다. 한 차례 시험으로 '인생'을 결정하는 것보다 만회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으나 탈이 났다. 출제 당국이 두 시험에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논란이 일자 이듬해 1회 시험으로 바뀌었다.

최근 서울대 교수들의 자치단체인 서울대교수회가 대권공약 제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중복 응시 등을 포함한 교육 개혁안을 내놨다.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1년에 수능 시험을 3~4회씩 보고 최고 점수, 혹은 점수의 평균치를 입시에 반영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수능을 1년에 두 차례로 늘리겠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수능을 두 번 쳐서 좋은 점수로 대학에 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학 입시에 대한 공론의 장은 열려야 하지만 경계해야 할 대목도 있다. 설익은 정책을 면밀한 검토 없이 시행하면 정책 실패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인생이 희생된다는 점이다.

/윤영기 정치·경제 에디터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